



빠져리게 입다는 건

외솔초 6-4 권지은

난 그 애가 싫었다. 정말 너무나도.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해야 할까. 뭐, 그 애에게 악감정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었다. 이유도 없이 너무 밍고, 짜증나고... 무엇보다 불편했다. 세포 하나하나마저 그 애가 싫다고 몸부림치는 듯, 난 그저 그 소름 돋는 감각에 놀라 도망 다닐 뿐이었다. 갠 생각보다 평범했다. 반에 하나쯤 있는 지루하고 시시하고, 찌찌한 녀석. 정말 딱 그것이야말로 우리 반 아이들의 80%가 생각하는 그 아이였다.

수학여행이 얼마 남지 않은 날, 삼삼오오 자기네들끼리 조를 짜고 있었다.

“난... 너랑만 같이 가고 싶은데.”

내가 고민 끝에 꺼낸 한마디였다.

“뭐? 왜, 우리 셋이 친하잖아! 같이 가면 되지!”

정말이지 호쾌한 답변이었다. 내 시공간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그 애가 온 거다.

“어? 왔어? 애가 너랑 같은 조 하기 싫다는데.”

손가락이 나를 향했다. 철렁—. 손가락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어찌지... 어찌지...’

온몸을 회전하는 피가 100도쯤 됐으려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그야말로 전신이 후끈거려서 죽을 것만 같았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르고,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아, 그래?”

그 애의 그 짧은... 그 단답이 뭐라고, 진짜 대체 뭐라고!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하게 느꼈다. 그 애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서, 차마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어렴풋이 느낄 순 있었다.

“어... 나 화장실 좀...”

그렇게 말하곤 교실을 뛰쳐나왔다. 머리가 지끈지끈 쭈셔왔다. 정작 내가 고안해 낸 대책은 ‘세수하고 한 번 더 생각하기’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벌써 식은땀으로 세수한 느낌이 들었다. 교실로 돌아와, 자리로 돌아가긴커녕 그 애들은 날 기다리고 있었다. 대 뇌 한구석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저릿함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귀에서 웅웅거리며 주변의 소음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내 상태를 알아봐 준 아이들 몇몇 덕에, 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평소와는 감각이 달랐다. 온 세포, 온 신경들이 무언갈 경계하고 있었다. 그 애였다. 내가 늦은 탓도 있고, 음악은 이동 수업이라서 바로 시청각실로 출발했다. 난 악기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당연히 음악 수업도 좋아했다. 그날은 단소를 부는 날이었다.

‘중 임 무무무 황태황 무무...’

평화롭게 연습하던 중, 의외의 사건이 일어났다.

“야! 같이 불고 싶으면 빨리 와!”

야... 너 왜 그러는 건데... 어제 일 기억 안 나냐고!

난 힐끔힐끔 눈치만 보며 그 애의 표정을 살폈다. 무표정. 그게 끝이었다.

호흡이 떨려서 단소 부는 내내 땀사리가 났다. 으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우여곡절 끝에 수업은 끝나고, 어느새 하교 시간이었다.

“우리 잠깐 운동장에서 보자.”

언제나 같은 그 애의 무표정이 처음으로, 너무나 무서웠다. 또, 두려웠다. 저벅저벅 운동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배가 아팠다. 몸이 아플 정도로 싫은 건지 아니면 그냥 긴장인지.

잠깐, 긴장한다는 게 싫어하는 건가?!

운동장에 가서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억누르고 말했다.

“왜 불렀어?”

“미안해.”

의외의 답변이었다.

“네가 요즘 나한테 좀 화난 거 같아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 좀 그래서...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해줘.”

아무렇지 않은 듯한 한마디였다. 그리고 이내 깨달았다. 미워한다는 것조차 관심이었다는 걸. 빠져리게 밉고, 싫은 것조차 기대였다고.

“아니, 없어.”

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보았다.



“나야말로 미안해.”

왜 지금껏 몰랐을까. 그 애는 날 전혀 싫어하지 않았단 걸.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고치에서 벗어나 하늘을 유영할 순간이라
는 걸.

